



출근길 빗속의 상념

허준석 (현대엔지니어링 수자원부)

한 방울 두방울 떨어진 빗물이 콧등을 치더니 이내 연신 쏟아지기 시작한다. 어느틈엔지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주먹만한 우산을 펼쳐 들어 드넓은 하늘을 가린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않고 갑작스런 빗물만이 온몸을 움추리게 만든다. 오늘따라 길가에는 차량도 인파도 무척이나 많아 보인다. 버스정류장 줄을 잇는 사람들 만큼이나 빗길에 줄을 선 차량행렬도 시선끝까지나 멀게 이어져 있다. 언제쯤 나타날까? 그 기다림에 지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공상에 넋을 뺐다.

물이란 것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던가? 인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물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최초의 생명체는 태초의 바닷물속에서 나타났고,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자궁 내의 양수속에서 인체조직이 형성되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고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유를 통해 오늘날처럼 성장했듯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키워주는 자애로운 것이 바로 물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물을 찾게되는 것이다. 애달 때도, 답답할 때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원인이 된 싸움도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끊이질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소중한 물의 한 형태인 비를 나는 지금 우산밖으로 비껴 보내고 있으니, 사뭇 색다른 감정이 출렁인다.

하지만 반문할 일이다. 이처럼 소중한 물을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진 형태로 그대로 돌려보내는가? 비가 내려 흐르는 한반도 곳곳의 강줄기는 그 흐름도 의심할 정도로 슬한 그리고 그 근원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오염물질과 뒤섞여 또다른 오염원이 되어 무한한 바다에 잠재적 오염원이 되어 쌓여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촉촉한 빗물과 대조적으로 마음속 황망함이 느껴진다.

현실에 대한 자극처럼 뒤에서 밀쳐대는 움직임에 휩싸여 뒤늦은 버스에 오른다. 차창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이 그 각도를 높여 세차게 내리고 있다. 한동안 혼잡한 도심길 한복판을 느린 속도로 움직이던 버스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이르러서야 그 속도를 더해간다. 차창밖 교량난간 아래로 보이는 한강 물줄기는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에 뒤질세라 흘러 내리는 모양새는 매우 억세고 거칠게만 보인다. 저 정도 기세라면 물줄기에 닿는 모든 것을 쓸고 갈 기세다. 내친김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소외된 물에대한 안이함도 함께 물고 갔으면, 동시에 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불어난 한강물 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길 바라는 평범한 희망을 가져본다. ●